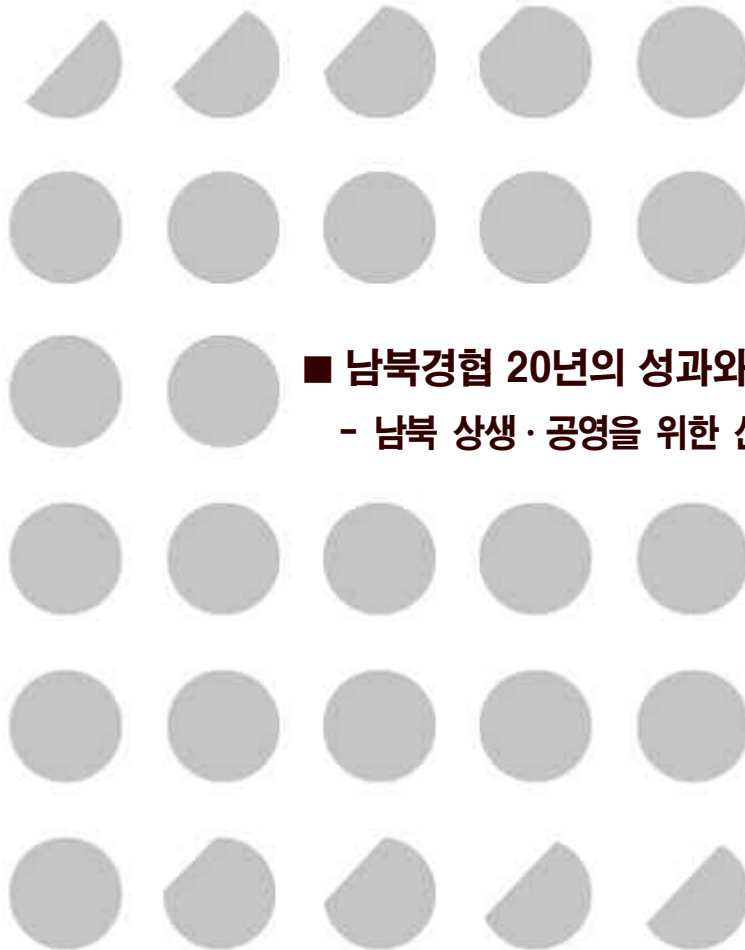




08-34 (통권 312호)

200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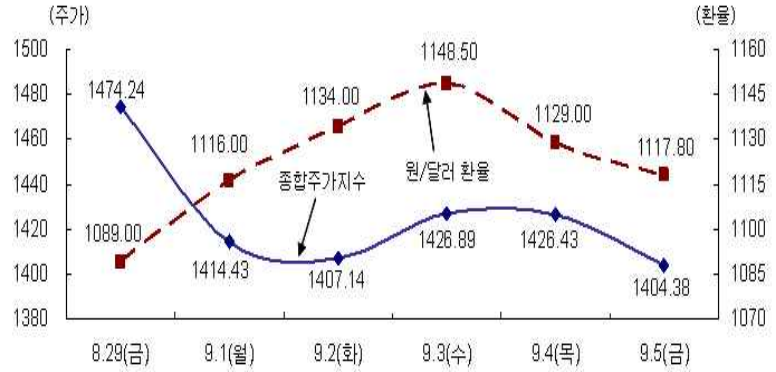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
-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신경협 전략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29~9.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	
-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신경협 전략	1
주간 경제 동향	25
□ 실물 부문 : 내수 위축에 의한 성장을 침체 지속	25
□ 금융 부문 : 원화 환율 상승세 둔화	2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통일경제센터 : 흥 순 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통일경제센터 : 이 해 정 연구원 (3669-4487,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남북경협 20년의 평가와 과제 -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신경협 전략

1. 남북경협의 발전 과정

(개요) 2008년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지 60년 되는 해로, 건국 60년을 맞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분단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특히 2008년은 1988년 '7.7 특별선언'을 계기로 10월의 '대북한 경제개방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지 20년 되는 해이다.

(남북경협 5단계) 분단 60년간의 남북경협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경협 이전 시기(분단 이후~1988년 7.7 선언 이전), 시도기(1988년 7.7 선언 이후~김영삼 정부 시기), 본격 추진기(김대중 정부 시기), 양적 성장기(노무현 정부 시기), 발전적 확장기(이명박 정부 이후) 등으로 구분된다. 1988년 7월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7.7 선언과 동년 10월 그 후속 조치로 나온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 지침』에 따라 시작된 남북경협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대규모 대북 지원과 2000년 1월 4대경협합의서 서명 등으로 경협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되었다. 양적 성장기인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시기에 들어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은 남북경협의 성장판 역할을 하였으며,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을 합의하였다. 발전적 확장기로 구분되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 시기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2. 남북경협 20년의 발전 추이

(인적교류 현황) 연도별 방북자 수는 1990년 183명에서 2007년 15만 8,170명으로 86배나 증가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수도 1999년 14만 7,460명에서 2007년에는 34만 8,260명으로 2.4배 늘어났다. 개성 관광객은 2007년 12월의 7,427명에서 2008년 6월에는 21,261명으로 늘어남으로써 2008년 1~7월에는 7만 6,247명에 달한다.

(남북경협 현황) 남북간 총교역도 1990년 1,350만 달러에서 2007년 1억 9,800만 달러로 13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교역 건수, 품목 수도 각각 624개, 39개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는 총교역에서 1993년 96.2%에서 2002년 57.3%로 줄었으나, 개성공단 사업 등 투자 사업의 확대에 따른 관련 교역의 증가로 2007년에는 79.6% 늘어났다. 특히, 북한의 대남 교역 비중은 1990년 0.3%에서 2007년에는 37.9%로 심화되어 2002년부터 남한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의 합의서 체결로 공식화되었으며,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의 누계 생산액은 3억 9,23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개성공단 북측근로자는 총 3만 1,638명에 달한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1998년 6월 북측과 관광·개발 사업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본격 시작되었다. 2003년 9월부터는 육로 관광이, 2006년 6월에는 내금강 관광이 가능해짐으로써, 2008년 6월까지 누적 관광객은 195만 명 이상에 달했다. 그러나 7월 11일 관광객 피격 사고로 중단된 상태이다.

개성관광 사업은 2005년 8월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원회가 시범관광에 합의하고 2007년 11월 3일 「남북관광협력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07년 12월 5일부터 관광이 시작되어 2008년 7월말까지 총 8만 3,674명의 관광객이 개성을 방문하였다.

3.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한계

지난 20년의 남북경협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법 제도화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로 인해 경제적 수익 실현 기업이 많지 않으며, 인도적 물자 활용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남북경협은 국내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과 통일 비용 측면에서 다양한 공헌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남한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 도움을 주었다. 남북경협은 대외 신인도 제고 효과를 비롯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수지 적자 개선, 공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투자, 인건비 절감 등의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를 보였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통해 '사실상의 평화적 통일' 구현의 장을 제공하였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성사된 남북통일농구대회와 평양교예단 서울 공연은 남북한 체육 문화 교류 확대의 지평을 열었다. 또한 군사 분계선을 둘러싼 긴장 완화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의 8년간의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면 총 275.6억 달러의 직간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07년 GDP 9,699억 달러의 2.8%에 해당하며, 2007년 민간 소비 규모 5,245억 달러의 5.3% 및 2007년 국가 예산 1,565억 달러의 17.6%에 해당한다.

4.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공영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대북 사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발전적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새로운 경협 구상을 이전의 긍정적 성과와 연계·확대하는 실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여 남북경협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개성공단을 평화신도시(통일실험도시) 혹은 '남북 자유무역지대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의 기존 경협 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에 근거한 기업 자율적 판단 하에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신정경분리 원칙이란 정치·안보 문제가 민간의 경협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민간 경협이 당국 간의 정치 논리에 의해 속도 조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유연한 경협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경제와 평화의 포괄적 단계적 병행 추진으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국제사회 지원이 예상되는 인도적 사업은 조건 없이 지원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핵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 유도과 재정 확충을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한미일 공동 개발펀드' 등의 경제 공조체제 수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장기 통일 기반 조성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평화·경제·행복 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중장기 차원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 사업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각종 법 제도의 통일과 함께, 남북한 인프라 실태 조사와 용어 표준화 등을 위한 민관학연 남북 공동의 연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남북경협 20년의 평가와 과제 >

남북경협의 발전 과정

남북경협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협 이전 시기[1948. 8~1988. 7]: 1공화국부터 6공화국의 88년 7.7선언 이전 - 시도기[1988.7~ 1998.2]: 1988년 7.7 선언 이후 남북경협 시작 - 본격 추진기[1998. 2 ~ 2003. 2]: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시기 - 양적 성장기[2003. 2 ~ 2008. 2]: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시기 - 발전적 확장기[2008. 2~ 현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	--

남북경협 20년의 발전 추이

인적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자 수 : 1990년 183명 → 2007년 158,170명(864배 증가) - 금강산 관광객 수 : 1999년 147,460명 → 2007년 348,263명(24배 증가) - 개성 관광객 수 : 2007년 12월 7,427명 → 2008년 1~7월 76,247명
남북경협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총교역 : 1990년 1,350만 달러 → 2007년 17억 9,800만 달러(133배 증가) - 북한 경제의 대남 교역 비중 : 1990년 0.3% → 2007년 37.9%(126배 증가) - 개성공단 사업 : 2008년 6월말 기준 누계 생산액 3억 9,230만 달러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한계

성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 수행 - 사실상의 평화 통일 구연의 장 제공 - 대외 신인도 제고 - 경기 활성화에 기여 - 문화 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 중장기적으로는 통일 비용 절감 효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미흡 -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과 법·제도화 미정착 - 사업의 경제적 수익 실현 부족 - 인도적 지원 물자 활용의 투명성 한계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

◆ 대북 사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발전적 확장	◆ 유연한 경협 전략 수립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지속
◆ 재정 확충 방안 모색	◆ 중장기 통일 기반 조성 준비

1. 남북경협의 발전 과정

1) 개요

- **건국 60년을 맞은 남과 북** : 2008년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지 60년되는 해로, 건국 60년을 맞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분단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함
- **남북경협 20년** : 2008년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7.7 특별선언'을 통해 대북교역 문호 개방을 선언한 데 이어, 1988년 10월 후속 조치로 '대북한 경제 개방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지 20년 되는 해임

2) 남북경협 20년의 발전 과정

- 분단 60년간의 남북경협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음
 - 경협 이전 시기(분단 이후~1988년 7.7 선언 이전), 시도기(1988년 7.7 선언 이후~김영삼 정부 시기), 본격 추진기(김대중 정부 시기), 양적 성장기(노무현 정부 시기), 발전적 확장기(이명박 정부 이후)로 구분

○ 경협 이전 시기(분단 이후~1988년 7.7 선언 이전)¹⁾

-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1948. 8~1961. 5)** : 북한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고, 실지회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제3공화국(1961. 5~1972. 10)** : 1950~60년대의 대화없는 남북대결시대는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경축사에서 발표된 평화통일구상선언을 통해 대화있는 남북대결시대로 전환
- **제4공화국(1972. 10~1980. 8)** :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7개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함

1) 자세한 내용은 조동호, 「지난 10년의 대북경제정책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 『KDI 정책토론회 : 남북경협 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KDI, 1998. 10. 자료 참조.

- 제5공화국(1980. 8~1987. 6) : 통일·대북정책은 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과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 제의, ②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제시 등으로 구체화됨²⁾
- 제6공화국 : 제6공화국의 통일·대북정책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표로 구체화

○ 시도기(1988년 7.7 선언 이후~김영삼 정부 시기)

- 남북 경협은 1988년 7월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7.7 선언과 동년 10월 그 후속 조치로 나온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 지침』에 따라 시작
- 초기에는 남북경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단순교역과 소규모 임가공에 그침
 - 1989년 1,870만 달러 → 1991년 1억 1,100만 달러 → 1992년 1억 7,300만 달러
- 제1차 북핵 위기 발발(1993.3)로 정치·안보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 협력 사업은 중단 사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경협사업자 승인업체가 없었음
 - 남북 교역도 1992년의 1억 7,300만 달러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쳤음 (1993년 1억 8700만 달러, 1994년 1억 9,400만 달러)

2) 특히 1982년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하여 20개 시범실천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이미 현재 남북한간에 추진·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① 서울·평양간 도로연결, ②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③ 설악산·금강산 지역을 자유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방, ④ 자유교역을 위한 인천항과 진남포항의 개방, ⑤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⑥ 경제인 등의 상호방문, ⑦ 일용생산품의 교역실시, ⑧ 자연자원의 공동개발·공동이용, 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전시회 교환개최 등. 한편, 북한은 1982년 2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하여 20개 시범실천사업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북한이 남북교류를 위하여 제기해 온 방안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 제네바 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중유 지원(1995. 1)과 KEDO의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1995. 12) 등의 북미 해빙 구도로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교류도 활발
- 남북한 당국간 협력 부진 속에서도 남북 교역은 신장(1997년 3억 834만 달러)

○ 본격 추진기(김대중 정부 시기)

- **본격 추진기(1998. 2~2003. 2) :**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시기
- 남측의 햇볕 정책과 북측의 본격적인 김 위원장 체제 출범, 페리 프로세스 (1999. 9)에 따른 미일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발표 등으로 경협 확대
- 1998년 4월 2차 경협활성화 조치³⁾에 따른 기업인의 수시 방북 확대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개시
-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대규모 대북 지원과 2000년 12월 4대경협합의서 서명 등으로 경협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이로써 IMF 외환위기로 감소한 남북교역은 1998년 2억 2,200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4억 2,500만 달러로 늘어났고, 2002년에는 6억 4,200만 달러로 증가

○ 양적 성장기(노무현 정부 시기)

- **양적 성장기(2003. 2~2008. 2) :**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시기
-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 마련
-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및 발효
- 특히,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을 합의
- 이로써, 2005년 남북교역은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7억 9,8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투자 부문도 금강산·개성 사업으로 확대
-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등 북핵 문제가 본격적인 경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3)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대기업 차원에서의 경협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남북교역 촉진을 위해 포괄승인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위탁가공교역시 생산설비 반출 제한을 폐지하였다.

○ 발전적 확장기(이명박 정부 시기 ~ 현재)

- 발전적 확장기(2008. 2 ~ 현재) : 이명박 정부의 남북 상생·공영 정책 시기
 - 최근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 상반기 남북 교역액은 8억 8,079만 달러로 전년 동기 교역액 7억 1,816만 달러 대비 23% 증가
 -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씨 북한군 총격에 사망,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상태
 - 남북경협이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음

< 남북경협의 시기 구분 >

구 분	시기별 주요 특징	비고
경협 이전 시기 (1948. 8~ 198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공화국부터 6공화국의 88년 7.7 선언 이전까지 - 평화통일구상선언(70. 8),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73. 6)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82. 1)이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시(82. 2)로 구체화 	
시도기 (1988.7~ 19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7.7 특별선언) 시기 - 남북 교역의 문호 개방과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 - 1988년 10월 후속 조치로 나온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 지침』에 따라 남북경협 시작 ○ 김영삼 정부의 핵·경협 연계 해제 방침 표명에 따른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94. 11)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대북 지원과 외자유치에 역점 - 위탁가공 및 경수로 관련 대규모 사업 성사로 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기본합의서(91. 12) - 북핵위기 발발(93.3)
본격 추진기 (1998. 2~ 200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시기 - 1998년 4월 2차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른 기업인의 수시 방북 확대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개시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대규모 대북 지원과 2000년 12월 4대경협합의서 서명 등으로 경협 활성화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리프로세스 (99.9)에 따른 미일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발표
양적 성장기 (2003. 2~ 200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시기 -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 마련 -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및 발효 -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발전적 확장기 (200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 -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상태 	

2. 남북경협 20년의 발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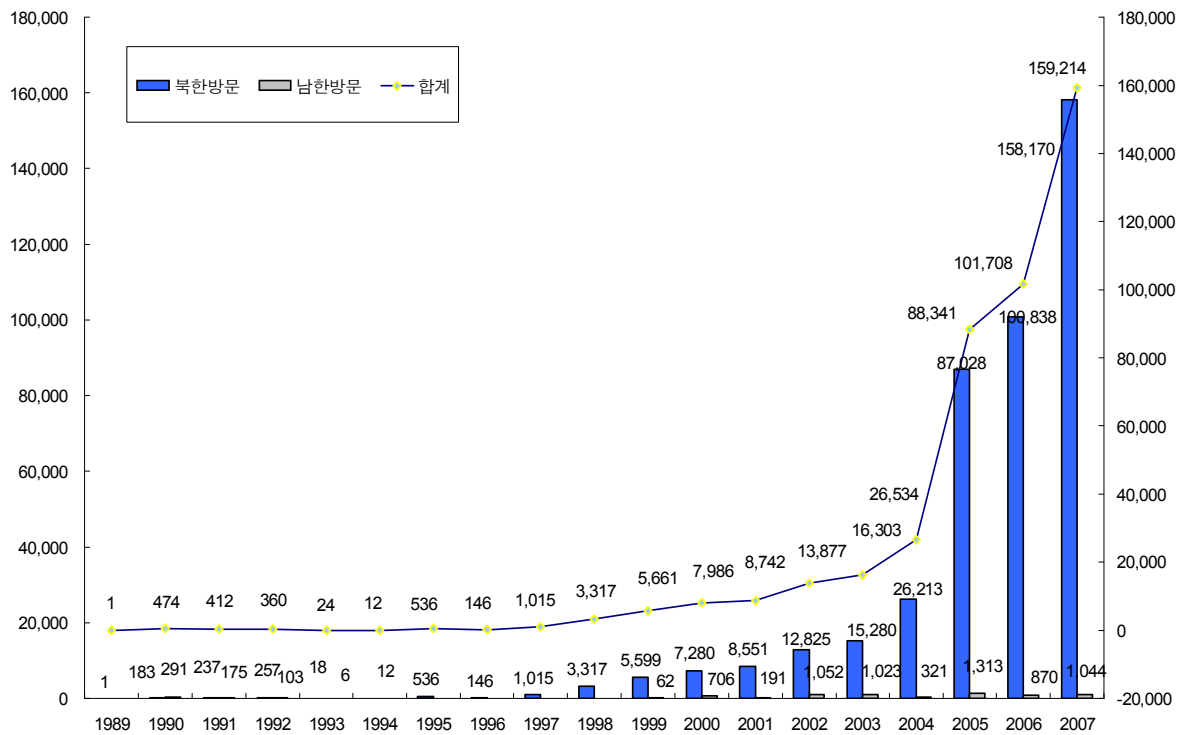
1) 인적교류 현황

○ 인적교류

- 연도별 방북자 수 : 1990년 183명 → 2007년 15만 8,170명 (864배 이상 증가)
- 금강산 관광객 수 : 1999년 14만 7,460명 → 2007년 34만 8,263명 (2.4배 증가)
- 개성 관광객은 2007년 12월의 7,427명에서 2008년 7월에는 1만 1,607명으로 늘어났으며, 7월말까지 총 83,674명이 관광객이 다녀갔음

< 연도별 인적 교류 현황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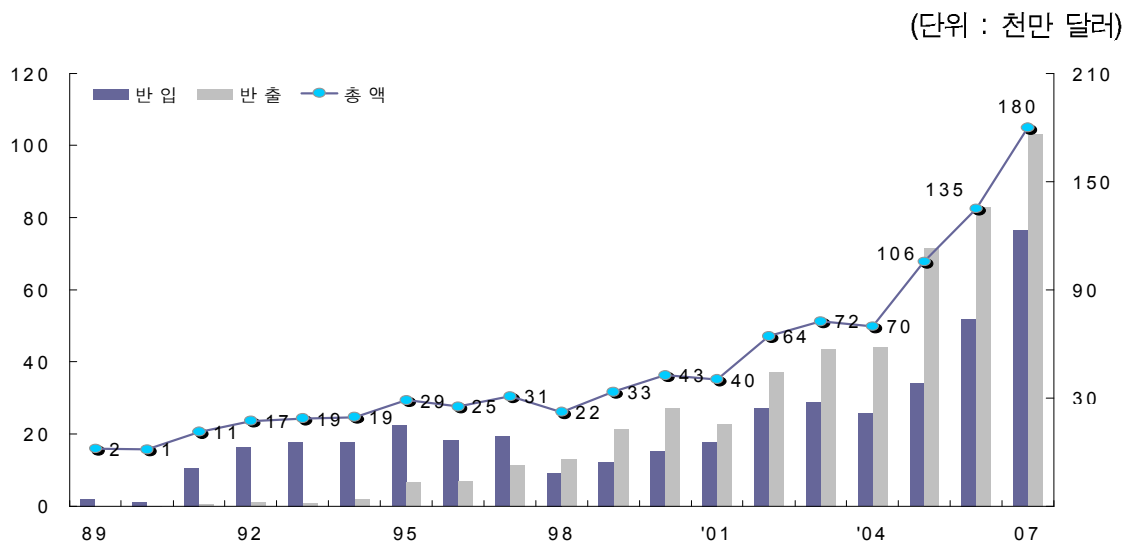
		단위	1990(A)	1995	2000	2005	2007(B)	배수
비관광 방북		명	183	536	7,280	87,028	158,170	864배
관광 방북	금강산 관광객	명	-	-	212,020	301,822	348,263	-
	개성 관광객	명	-	-	-	-	7,427	-
총계		명	183	536	219,300	388,850	513,860	2,808배

2) 남북경협 현황

○ 남북간 총교역

- 남북간 총교역 : 1990년 1,350만 달러 → 2007년 17억 9,800만 달러(133배 이상 증가)
 - 동 기간 중 교역 건수, 품목 수도 각각 624배, 33배 증가
 - 상업적 거래는 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투자) 사업의 확대에 따른 관련 교역의 증가로 총교역에서 1995년 96.2% → 2002년 57.3% → 2007년 79.6%로 증가
 - 상업적 거래에 대한 경제협력(투자) 사업의 비중도 1998년 21.3% → 2003년 4.9% → 2007년 39.6%로 증가

< 남북 교역의 연도별 추이 >



< 남북경협의 연도별 현황 >

	단위	1990(A)	1995	2000	2005	2007(B)	배수
총 남북 교역	100만\$	13.5	287.3	425.1	1,055.8	1,797.9	133배
교역 건수	건	83	2,644	7,394	21,215	51,758	624배
교역 품목수	개	26	244	578	775	852	33배
사업 승인수	건	-	1	2	32	155(5)	-
상업적 거래 비중	%	-	96.2	64.3	65.3	79.6	-
· 경협사업비중	%	-	-	20.4	39.2	39.6	-
대남 교역 비중	%	0.3	12.3	17.8	26.0	37.9	126배

주 :1) 사업 승인은 경제협력(투자) 사업 승인을 의미하며, () 내는 승인 취소 건수임
 2) 상업적 거래란 총 교역 중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교역, 경제협력 사업의 합으로 지원성 및 KEDO, 경수로 사업 거래를 제외한 것임

○ 대남 교역 비중

- **북한의 대남 교역 비중⁴⁾** : 1990년 0.3%에서 2007년에는 37.9%로 심화되어 2002년부터 남한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함
 - 수출의 경우는 남한이 북한 전체 수출의 45.4%를 차지하여 제 1위의 수출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34.6%를 차지하여 제 2위로 나타남
 - 결국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남한과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및 남한에 대한 교역 비중이 크며, 중국은 북한의 주된 수입 시장, 그리고 남한은 주된 수출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대남·대중·대일 무역 비중 추이 >

(단위 : 억 달러)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총 무역액	41.9	23.4	23.9	30.0	43.5	47.4
북중간 (의존도)	4.82 (11.5%)	5.50 (23.5%)	4.88 (20.4%)	15.80 (38.9%)	17.00 (39.1%)	19.74 (41.7%)
북일간 (의존도)	4.76 (11.4%)	5.95 (25.4%)	4.64 (19.4%)	1.94 (4.8%)	1.22 (2.8%)	1.22 (2.6%)
남북간 (의존도)	0.13 (0.3%)	2.87 (12.3%)	4.25 (17.8%)	10.56 (26.0%)	13.50 (31.1%)	17.97 (37.9%)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각호

○ 투자협력사업

- **투자협력사업** : 2007년 6월말 현재, 의향서 제출 단계의 사업자 승인 건수는 364건이며, 사업 승인 건수는 331건에 달한다.
 - 최초의 대북 투자 사업은 1992년 10월, 대우 남포공단의 합영 사업이 협력 사업자승인을 받음으로써 시작
 - 이후 투자 부문의 경제협력 사업은 1994년 11월과 1998년 4월의 「남북 경제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가시화된 후, 2004년의 개성공단 사업으로 본격화

4) 북한의 무역에서 남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다른 분단국가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동독과 서독의 경우 1972년 기본조약의 체결로 정치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내륙교역이 동독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교역 역시 1980년대 말부터 크게 늘어났으나 양안교역이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미달하고 있다. 게다가 외화난이 심각한 북한으로서 남북 교역을 통한 외화의 획득 규모는 상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동호, 「남북 경제 발전의 상생 모델 모색」 현대경제연구원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 체제 구축』, 2007년 남북경제 정책 세미나 자료집, p. 8. 참조.

< 경제협력 사업(자) 승인 현황 >

(단위 : 건)

	92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1~6	계
사업자 승인	1	6	4	16	13	2 (4)	1	6	3	4	28 (1)	38	24 (1)	176 (5)	42	364 (11)
사업 승인		1		5	9	1	2	5	2	2	26 (1)	38	23 (1)	176 (5)	41	331 (7)

자료 : 통일부,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동향』, 2008. 6.

주 : ()는 승인 취소 건 수로, 사업자 승인업체 중 대상은 신일피혁, 세원커뮤니케이션, 성화국 제그룹, 아이엠시스템, 훈넷, 브이케이, 스튜디오 투로모우, 제이슨상사, 육일섬유공업사, 지아이씨상사, 아이보리이며, 사업 승인업체로는 훈넷, 브이케이, 스튜디오 투로모우, 제이슨상사, 육일섬유공업사, 지아이씨상사, 아이보리임

○ 개성공단 사업

- **개성공단 사업** :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의 합의서 체결로 공식화되어,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2,000만 평에 대한 개발·운영권을 남측에게 일임한 대규모 파이럿(pilot) 프로젝트 사업
- 2000년 11월에는 1단계 100만 평 사업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공동 시행키로 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준당국 차원에서 발전
 - 마침내 시제품은 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2003. 6. 30) 1년 반만인 2004년말에 출시되었고, 2008년 7월말 현재에는 총 7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음
-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의 누계 생산액은 3억 9,23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현재 개성공단 북측근로자는 총 31,638명에 달함⁵⁾
- **활성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 :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누적수출액은 8,153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 및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⁶⁾

5)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www.kidmac.com)

6) 남북 철도와 도로 개통, 개성공단업체 생산량 증가 등에 대비해 지난 2005년 10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온 도라산 물류센터 준공식이 2007년 12월 10일 개최됨. 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물류센터는 화물통관과 식물 검역, 동물 계류와 검역, 철도 차량 정비와 검수 등을 지원하는 역할

-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수출 현황에 따르면, 2007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연간 생산액은 약 1억 8,500만 달러로 2006년 연간 생산액(약 7,400만 달러)에 비해 150.6% 증가함

< 개성공단 제품의 생산 및 수출 추이 >

(단위 : 천 달러)

기간	2005	2006	2007	2008.1-6	합계
생산(A)	14,906	73,737	184,779	118,870	392,292
반출	13,867	70,086	181,372	-	265,325
수출(B)	866	19,825	39,669	21,170	81,530
수출비중(B/A)	5.8%	26.8%	21.4%	17.8%	20.8%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관광 사업

① 금강산 관광

- 금강산 관광은 1998년 6월 북측과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 합의
- 같은 해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남북경협 의정서'(1989. 1) 체결 10년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03년 9월부터는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졌으며, 2006년 6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시작돼 관광 코스가 다양해지면서 2008년 6월까지 누적 관광객은 총 195만 명에 달했음
- 2008년 3월 17일부터는 금강산 승용차 관광이 시작되었으며, 7월 중순에는 비로봉 관광이, 7월 말에는 골프장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음
- 그러나 7월 11일 관광객 피격 사고로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된 상태임

을 수행할 예정임. 연간 16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물류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 >

(단위 : 만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8.1~6
연도별	1	15	21	6	9	7	27	30	24	35	19
누적	1	16	37	43	52	59	86	116	141	176	195

② 개성 관광

- 개성 관광은 2005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시범관광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음
 - 2005년 3차례에 걸쳐(8.26, 9.2, 9.7) 1,600명이 고려 성균관, 선죽교, 박연폭포 등의 시범 관광을 실시

-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2007년 11월 3일 「남북관광협력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 2007년 12월 5일부터 1일 300명 규모의 개성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7년 12월 말까지 7,427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
 - 2008년 1~7월까지 7만 6,247명이 개성을 관광함으로써 7월말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총 8만 3,674명에 달함

< 연도별 개성 관광객 추이 >

(단위 : 명)

	2007	08.1	08.2	08.3	08.4	08.5	08.6	08.7	합계
관광객 수	7,427	9,049	8,540	11,400	11,536	11,954	12,161	11,607	83,674

3.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한계

1) 긍정적 성과

○ 경제적 측면 :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남북경협은 남한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 도움을 줌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효과
 -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수지 적자 개선, 공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투자, 인건비 절감 등
 - 이외에도 남북 경제의 균형 발전과 경제공동체 형성, 그리고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과 기업들에 대한 신규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의 촉매제 역할⁷⁾

① 대외 신인도 제고 효과

-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닦음으로써 IMF 외환위기 극복과 대외 신용 등급의 급락 예방 등을 통해 외채 상환 부담을 경감시킴
-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②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
 - 대북 관광 사업은 관광객 매출액 수입과 교통 운수 사업, 대북 투자 등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개성공단 역시 생산 효과를 통해 기여

7)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은 ‘남북경협이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신규 사업 기회 제공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65.3%)이거나 ‘향후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19.0%)이라도 응답함으로써, 응답 기업의 84.3%는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기업 10곳 중 8곳,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에 도움,”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과 애로 실태 조사』, 2008. 1. 28.)

-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금강산 관광 사업시 관광객들의 강원도 지역 체류로 인한 관광 수입 기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광 수지 적자 개선 효과
 - 2000년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관광 수지 적자는 2007년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대북 관광 사업의 활성화는 이러한 관광 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
- 공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투자 비용
 - 공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원부자재 판매 수입 등 투자 비용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
- 인건비 절감 효과
 - 금강산 지구 시설 운영과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고용에 따른 남한의 1/4 정도로 저렴한 북측 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

○ 정치·군사적 측면 : 한반도의 긴장 완화

-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 수행
 - 당국간 공식적인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관광과 경험을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인 대립 관계 형성 예방과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 역할을 수행
 - 남북 관계 개선의 연결 고리 역할뿐 아니라, 당국간 대화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통일의 길잡이 및 신작로 역할을 담당
-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사실상의 평화적 통일' 구현의 장(場)을 제공
 -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이념적 대립보다는 경제적 실사구시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적대적 대립' 관계를 '경쟁적 협력' 관계로의 변화를 촉진 시킴

- 또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방문은 법적·제도적 통일에 앞서 '사실상의 평화적 통일'(de facto peaceful unification)을 구현하는 단초를 제공
- 군사 분계선을 둘러싼 긴장 완화 효과
 - 금강산 및 개성 사업은 군사 분계선의 부상 및 관통 의미가 있으며, 대결과 갈등의 비무장지대(DMZ)를 화해·협력의 통일 꿈을 실현하는 공간(DMZ : Dream Making Zone)으로 거듭나게 함
 - 특히,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미군과 인민군 관할 하에 있던 비무장지대(DMZ) 일부가 남북한 양측 관리 하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한반도 군사 문제를 부분적이거나 '민족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존재
 - 물론, 경협이 한반도 평화 기여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경협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 중장기적 측면에서 통일비용 절감 효과
 - 군축과 병력 감축으로 국방 부문의 예산 절감 효과 예상되며, 이는 비군사 부문의 예산 투자는 물론, 국민 경제 내의 생산 활동과 소비 진작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임
 - 긴장 완화에 따르는 군비 확장 축소 효과
 - 감축된 군 병력을 산업 인력으로 전환하여 생산 증대 활동에 기여

○ 사회·문화적 측면 : 문화 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

-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질감 해소와 민족 통합 및 문화공동체 형성의 돌파구를 마련
- 남북경협 추진 과정에서 빈번한 만남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상호 이질감 해소 및 이해·협력 증진,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해결 돌파구 제공

-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으로 성사된 남북통일농구대회와 평양교예단 서울 공연은 각종 국제 체육대회의 동시 입장과 응원으로 연결되어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 확대의 지평을 열
- 상호 신뢰감 형성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동시 입장 및 응원을 비롯, 각종 체육·문화·종교 행사로 이어짐

○ 남북경협외 공공재적 성격

-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에게는 경제적 수익을 제공하고, 참여하지 않는 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긍정적 외부 효과(한반도 평화 증진, 군사적 긴장 완화) 창출
- 남북경협을 위해 기업이나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은 대북 진출에 따른 수익성과 미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비 감축이나 통일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함
- 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초기 단계의 저조한 수익성은 남한에게 비정상 국가 진출을 위한 시장 개척 비용의 '수업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확충 등 북한지역 경제의 내생적 성장기반 조성은 향후 통일 후 경제적 비용의 감축 효과
- 통일 이전에 경협 활성화를 통한 산업 구조 조정과 경제력 격차 해소,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수준 제고 등의 노력은 곧 통일 비용 최소화로 연계
- 금강산과 개성관광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남북경협 20년의 정량적 평가

- 기본 가정
 -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제도화 진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8년간의 효과를 주로 분석
 - 경제적 측면의 정량적 분석과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성적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 측면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
- 그간의 남북경협 성과를 분석하면 총 275.6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 이는 2007년 GDP 9,699억 달러의 2.8%에 해당하며, 2007년 민간 소비 규모 5,245억 달러의 5.3%, 그리고 2007년 국가 예산 1,565억 달러의 17.6%에 해당
 - 특히, 중장기적 측면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 181.6억 달러는 2007년 국방비 245억 달러의 65.9%에 해당

<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종합) >

분야	성과	비고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신인도 제고 효과 : 77.8억 달러 -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 16.2억 달러 -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 : 10.9억 달러 -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0.7억 달러 - 공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투자 비용 : 4.1억 달러 - 인건비 절감 효과 : 0.5억 달러 	94.0억 달러
정치·군사 사회·문화 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 수행 : 비공식적 외교 채널 및 남북 관계 개선의 연결고리 역할 - 한반도 긴장 완화와 '사실상의 평화적 통일' 구현의 장 제공 - 군사분계선의 북상 효과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군사분계선의 관통 및 북상의 의미가 있음 - 남북경협 합의서 체결 등 남북 관계 제도화에 기여 -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 : 경협 추진 과정에서 빈번한 만남의 장이 마련, 상호 이질감 해소 및 이해·협력 증진, 이산가족 상공과 고향 방문 해결 돌파구 제공 - 상호 신뢰감 형성으로 각종 국제대회 동시 입장 및 응원, 남북한 체육·문화·종교 행사로 이어짐 	북핵실험 이후 한계를 보이거나 경협의 평화 유지 역할은 부인할 수 없음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성사된 남북통일농구대회가 지평을 여는 역할을 함
통일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비 예산 절감 효과 : 48.5억 달러 - 긴장 완화에 따른 군비 확장 축소 효과 : 81.5억 달러 - 군 병력의 산업 인력 전환 효과 : 51.6억 달러 	181.6억 달러
합계	275.6억 달러	

2) 한 계

○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미흡

- 남북경협 20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남북한 간의 근본적인 이념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과 법·제도화 미정착

- 실질적인 4대 남북경협합의서와 3통(통행·통관·통신)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음
 - 4대 남북경협합의서는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조정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말함
- 또한, 국내 기술자의 북한 내 장기 체류와 북한 기술자의 남한 본사 교육 등에 어려움이 존재

○ 사업의 경제적 수익 실현 부족

- 대부분의 사업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투자 자금 회수와 본격 가동을 통한 대규모 수익 창출 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임
- 이는 북한의 경협 인프라 부족이 큰 원인이나, 대북 사업이 자금력과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측 요인도 있음

○ 인도적 지원 물자 활용의 투명성 한계

- 인도적 지원 물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것이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 결과, 물자 활용에 대한 남북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

4.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

○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 상생과 공영의 발전적 확장 추구⁸⁾

- **대북 정책 비전** :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 (평화공동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통한 새로운 평화 구조 창출
 - (경제공동체)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 지원을 통한 상생의 남북경협 추구
 - (행복공동체)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및 남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남북한 7천만의 행복 추구

- **4대 추진 원칙** :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라는 4가지 원칙에 따른 접근

- **추진 과제** : 대화를 통한 실질적 해결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지속적 노력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
 - 5가지 과제는 상기 과제를 포함하여, 상생의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질적 도약,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제고,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등임
 - 특히, 상생의 남북경협 부문에서는 비핵·개방·3000의 실천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 새로운 경협 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 합의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8) 통일부,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2008. 8.

○ 보완 과제 : 新정경분리 원칙하에 지속발전가능한 경협 모델 구축

- **대북 사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발전적 확장** : 새로운 경협 구상을 이전의 긍정적 성과와 연계·확대하는 실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
 - 특히,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여 남북경협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개성공단을 '평화신도시(통일실험도시)' 혹은 '남북 자유무역지대'로 확대 발전 추진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의 기존 경협 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에 근거한 기업 자율적 판단 하에 계속 추진되어야 함
 - 신정경분리 원칙이란 정치·안보 문제가 민간의 경협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 민간 경협이 당국 간의 정치 논리에 의해 속도 조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유연한 경협 전략 수립** : '경제와 평화'의 포괄적·단계적 병행 추진으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
 - 비핵·개방·3000 구상을 조건부 및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이 아니라, 경제와 평화를 동시 병행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지속** : 국제사회 지원이 예상되는 사업은 조건 없이 지원
 - 특히,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식품·의약 지원 등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현안과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 추진
- **재정 확충 방안 모색** : 북핵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 유도과 재정 확충을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한미일 공동 개발펀드' 등의 경제 공조체제 수립 필요
- **중장기 통일 기반 조성 준비** : 정부의 평화·경제·행복 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중장기 차원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 사업 등을 추진
 - 예컨대, 각종 법·제도의 통일과 함께, 남북한 인프라 실태 조사와 용어 표준화 등을 위한 민·관·학·연 남북 공동의 연구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이 요구됨

< 참고 > 남북경협 20년의 효과 분석

○ 경제적 측면

① 대외 신인도 제고 효과

- 국가 신인도 제고 효과
 -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닦음으로써 IMF 외환위기 극복과 대외 신용 등급의 급락 예방 등을 통해 외채 상환 부담을 경감시킴
 - 국가 신인도 제고 효과는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에 따른 외채 상환 경감 효과를 들 수 있음
 - 남북경협 확대기 가운데에서도 활성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대외 신인도 제고 효과만을 산출하기로 함

- 신용 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외채 상환 이자 부담 경감 효과
 - 6.15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6월말과 2008년 3월 현재의 외평채 스프레드 차이를 비교하면, 2.23%에서 0.60%로 1.63% 포인트 절감 효과 발생
 - 다만 스프레드 인하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완화뿐 아니라 국제 금리 인하와 한국 경제의 개선 등이 복합 작용한 것이므로, 이의 1/3 이하 수준인 0.5% 포인트만 적용

대외 신인도 제고 효과 = 외채 상환 이자 부담 경감 효과
 ※ 외채 이자 부담 경감 효과 = 총외채 규모(2000년 6월말~2008년 3월말 평균: 1,945억 달러) × 금리 인하 효과(0.5% 포인트) × 기간(8년)

< 남북경협에 따른 국가 신인도 제고 효과 >

(단위 : 억 달러)

	외채 상환 경감
국가 신인도 제고	77.8

②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i)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

- 금강산 및 개성관광 사업 추진 상의 관광객 매출액 수입과 교통 운수 사업, 대북 투자 등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효과 및 개성공단의 생산을 통한 효과를 분석
- 관광 비용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계절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당일 관광은 20만 원⁹⁾(200 달러), 1박 2일은 30만 원(300 달러), 2박 3일은 40만 원(400 달러) 적용
 - 대북 관광 대가는 당일 관광의 경우 30 달러, 1박 2일은 48 달러, 2박 3일은 80 달러를 적용¹⁰⁾
 - 2006년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2만 5천원(125 달러) 적용
 - 단, 개성관광의 경우 관광비용은 18만원(180 달러), 대북 관광 대가는 100 달러 적용
- 1인당 관광버스 요금은 왕복 3만 원(30 달러)로 고정
- 2008년 7월 말 현재 금강산 누적 관광객 수는 1,955,951명¹¹⁾, 개성 누적 관광객 수는 83,674명으로 누적 관광객은 총 2,039,625명임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 = [연도별 관광객 수 × (1인당 남측 관광 총 수입 - 대북 관광 대가

※ 1인당 남측 관광 총 수입 = 1인당 관광 비용 + 현재 소비액 + 관광 버스 요금

※ 총 소비액 중 남북 양측의 판매 수입 비중은 공히 반분(50%)을 가정

< 관광의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 >

(단위 : 백만 달러)

	당일 관광	1박 2일	2박 3일	합계
효과	119.7	226.4	370.3	716.4

9) 원/달러 환율은 1,000원으로 통일.

10) 관광대가는 2007년도 실적치를 적용

11) 상품 기간별 관광객 수는 2005년 상품 기간별 관광객 평균 비율(당일 20.5%, 1박2일 33.6%, 2박3일 45.9%) 적용

- 개성공단의 2008년 5월 현재 총 생산액은 373.8백만 달러이고 수출액은 총 79.2백만 달러로 2003년 기준 생산유발계수 1.890을 적용하면, 수출을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는 149.7백만 달러

< 개성공단의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 >

(단위 : 백만 달러)

	생산 효과
국민 경제 활성화	373.8

ii)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금강산 관광시 강원도 체류 시간은 관광 일정에 상관없이 모두 하루(1일)로 가정
 - 당일 및 1박 2일 관광객은 남북간 입출경 시간의 제한으로 대부분 전날 밤에 도착하여 하루 숙박하거나 새벽에 도착하여 방북하며, 오후에 출경
- 금강산 관광객은 강원도 지역 자체에 대한 관광 목적이라기보다는 경유의 의미가 강하므로, 소비 지출액은 강원도 지역을 방문한 순수 관광 목적 관광객 소비액의 2/3를 적용
 - 2007년 강원도 지역 당일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53,356원 (한국관광공사, “순수 관광 목적의 방문 지역별 분석, 『2007 국민 여행 실태 조사』, 2008. 5)

<p>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연도별 관광객 수 × 강원도 지역 당일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의 2/3</p>
--

<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단위 : 백만 달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69.6
--------------	------

iii) 공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투자 비용

- 원부자재 비중은 건교부의 '건설 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건설교통부)에서 토목 공사 부문의 재료비 비중 61.6%를 적용
- 남측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중은 북측의 3%를 제외한 97% 적용
- 금강산 관광을 위한 총 투자비는 375.6백만 달러, 개성공단의 총 투자비는 315.5백만 달러임

$$\text{원부자재 판매수입} = \text{총투자비} \times \text{원부자재 비중}(61.6\%) \times \text{남측 조달 비중}(97\%)$$

< 원부자재 판매 수입 >

(단위 : 백만 달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합계
원부자재 판매 효과	224.4	188.5	412.9

iv) 인건비 절감 효과

- 금강산 지구 시설 운영과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
 - 남북경협 사업이 활성화 되어감에 따라 북측의 노동 생산성은 남측의 80% 수준으로 증가
 - 금강산 지구 북측 고용자 수는 2008년 2월말 현재 1,400명,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 수는 2008년 7월 4일 현재 30,084명
 - 북측 임금은 개성공단의 최저 임금(월 57.5 달러)를 적용
 - 금강산 지구 비교에서는 남측 서비스 분야 상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월 228만 9천원)을 적용, 개성공단 비교에서는 남측 제조업 분야 상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월 204만 9천원)을 적용(노동부, 『2007년 임금구조실태분석』, 2008.3)

현재 시설 운영시의 인건비 절감 효과 = 고용자 수
 × 남북간 생산성 격차(80%) × 남북간 임금 격차

< 시설 운영상 인건비 절감 효과 >

(단위 : 백만 달러)

	금강산 지구	개성공단	합계
효과	2.54	48.74	51.28

○ 예상 통일비용¹²⁾ 절감 효과

① 국방비 예산 절감 효과

- 군축과 병력 감축으로 국방 부분의 예산은 현재의 2.6%에서 2.1%로 절감된다고 가정
- 이는 2005년 국방비 20.8조 원의 66.1%가 인건비 등의 경상사업비인 점을 감안하면 30%의 병력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19.8%의 국방비 예산이 가능하며, 이는 2005년 GDP 806.6조 원의 0.5% 포인트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
- 이는 비군사 부분의 예산 투자는 물론, 국민 경제 내의 생산 활동과 소비 진작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임

국방비 절감 효과 = 2007년 GDP 대비 0.5%p (2.6%→2.1%)

< 국방비 절감 효과 >

(단위 : 억 달러)

	계
국방비 절감 효과	48.5

12) 통일비용이란 통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의미. 일반적으로 통일비용 내역으로는 제도통합비용, 경제적 투자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SOC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남북한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비용의 정의, 추정방법과 주요 가정 및 발표 연도 등에 따라 170억~3조 5,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② 긴장 완화에 따른 군비 확장 축소 효과

- 교류 협력 활성화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에 따라 늘어나야 할 국방비가 늘지 않았다고 가정, 2001~2008년까지 매년 5%씩 절약되었다고 가정
- 참고로 총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2006년 16.3%에서 2007년에는 15.6%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음

$$\text{군비 확장 축소 효과} = \text{연도별 국방비} \times \text{감축 효과}(5\%)$$

(단위 : 억 달러)

	계
군비 확장 축소 효과	81.5

③ 군 병력의 산업 인력 전환 효과

- 군 병력 감축의 생산 활동 인구로의 전환시, 이의 임금은 2007년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212.7만 원)을 적용
- 국회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의 ‘국방개혁법안’을 통과하였음(2006. 12. 1)
- 남북관계 개선으로 병력이 30% 감축된다고 가정
- 동서독 통일 이후 군 병력은 66 명에서 37만 명으로 43.9% 감축되었고, 동서독 지역에 주둔한 외국군을 포함하면 총 145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66.2% 감소
- 미국의 랜드연구소(2005. 6)는 통일이 되면, 현재 170만 명의 남북한 군 병력이 40만 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

$$\begin{aligned} \text{군 병력의 산업 인력 전환 효과} &= \text{현재의 군 병력}(67.4\text{만 명}) \times \text{감축 비율}(30\%) \\ &\times \text{상용 근로자의 연 평균 임금}(212.7\text{만 원} \times 12\text{개월}) \end{aligned}$$

< 국 병력의 산업 인력 전환 효과 >

(단위 : 억 달러)

	계
군 병력 전환 효과	51.6

홍 순 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이 해 정 연구 위 원 (3669-4487, hjlee@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내수 위축에 의한 성장률 침체 지속

○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실질 경제 성장률이 내수 경기 위축으로 1/4분기 5.8%에 비해 1%p 하락한 4.8%로 나타남

- 민간소비는 통신 및 의료보건 등 서비스 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 지출이 대폭 악화되어 1/4분기에 비해 0.9%p 하락한 2.3%를 기록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부진으로 1.2%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증가로 1.0% 증가
- 순수출은 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등의 수출 호조와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4분기에 비해 2.4%p 증가한 3.3%를 기록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6월	7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0	3.9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4.4	10.7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3.4	-13.0
		수출	14.4	14.1	9.4	18.2	17.4	23.2	16.6	36.0
	공급	광공업생산	8.3	6.8	6.0	11.0	10.6	8.6	6.8	9.1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96	2,390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1	3.1
		수입	18.4	15.3	7.3	25.9	28.8	30.2	32.5	47.2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	18.2	-24.5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59	1	-5	-19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0.5	12.5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5	5.9	
	수입물가	0.9	4.5	1.5	12.2	23.9	41.6	49.0	50.6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 상승세 둔화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 강세 강화

- **금리**: 신규실업수당 청구권자수의 예상치 상회 등으로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전주말 대비 상당폭 하락 (국채 10년물 : 3.81→3.62%)
- **환율**: 달러화는 유럽 경기 침체,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유로화에 강세를 시현한 반면, 미국 고용 지표 불안 영향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소폭 약세로 마감 (\$/€ : 1.4674→1.4325, ¥/\$: 108.80→107.08)

○ (국내 금융 시장) 증시 연중 최저치 하락

- **주가**: 주중 단기급락에 따른 조정으로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미국 증시 급락 및 원화 환율 급등에 따라 전주말대비 대폭 하락 (1,474.2→1,404.8)
- **금리**: 주초반 원화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국채 선물 대규모 순매도로 급등한 이후 단기급등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국고채 3년 수익률: 5.77→5.80%)
- **환율**: 원화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으로 주중 1,148원까지 급등한 이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 당국의 매도개입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 (1,089.0→1,117.8)

○ (전망) 9일, 10일 채권만기도래일 이후 원화 상승 압력 완화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4/4	1/4	2/4	3/4	4/4	1/4	8.29	9.5 ¹⁾
국내	거래소 주가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474.2	1404.38
	국고채3년(%)	4.92	4.76	5.26	5.46	5.74	5.10	5.77	5.80
	원/달러	929.8	940.9	923.8	915.1	936.1	990.4	1,089.0	1,117.8
해외	DOW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1,543	11,188
	Nikkei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3,072	12,557
	미국채10년(%)	4.70	4.57	5.02	4.59	4.02	3.87	3.81	3.62
	일본채10년(%)	1.69	1.60	1.88	1.69	1.51	1.45	1.41	1.51
	달러/유로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4674	1.4325
	엔/달러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08.80	107.08
	두바이(\$/배럴)	56.71	63.12	66.42	76.64	89.06	97.66	111.03	104.75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9.4) 기준